

# 사람이 사람 되는 데에는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있을 리가 없다

| 김홍호 |

믿음의 힘과 생명, 오직 그 절절한 삶의 무한한 에너지에 몰입한 육상산을 김홍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陸九淵 | 호象山 1139~1192

육

상산(陸象山)은 주자보다 아홉 살이나 어린 사람이지만 그 당시 중국 철학계에서는 주자와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적수였다. 상산은 심즉리(心卽理)라는 학설을 들고 나왔고, 주자는 성즉리(性卽理)라는 학설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이 관학이었으므로 조금이라도 관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말았으니 남송의 육상산, 주회암하면 중국에서는 쌍벽이라고 할 만큼 쟁쟁한 인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주자와 상산은 여동래(呂東萊)라는 사람의 알선으로 각기 자기의 사상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강서 연산현에 있는 아호사(鵝湖寺)에서 간담을 털어놓고 만나볼 수가 있었다. 그때 주자는 46세, 상산은 37세였다. 박학다식의 주자와 백절불굴의 상산이 만난 것이다. 이 당시 주자는 고집불통의 상산과는 말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상산도 들떠 해매는 주자와는 역시 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토론은 그것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러나 산 같은 상산에 주자는 끌렸고, 물 같은 주자에 상산도 끌렸다. 산과 물이 마주쳐 아호의 명승은 더욱 절승을 이루었다. 그 후에도 산과 물의 논쟁은 계속되었고 더욱이 13년 후 상산이 50세, 주자가 59세 때 서로 오간 편지는 불꽃 튀기는 논쟁이었다.

젊은 상산은 언제나 주자의 약점을 깊이 찔렀다. 그에게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끝이 준비되어 있었다. 상산이 백록동서원에 강사로 초빙되어 『논어』의 군자소인의리장을 강의한 것은 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모인 많은 학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산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지혜와 무거운 힘이 있었다. 그의 설득력의 크기는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상산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일원론이기 때문이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한 구멍을 파자는 것이 상산이요, 주자는 외골수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복선이 있어야 하며 우선 사람을 의심해보고 믿을 수 있거든 믿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상산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손상뿐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상산은 유교를 종교로만 보았고 주자는 유교를 도덕으로만 보았다.

도덕의 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는 법이다. 선악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입장이다. 그런데 상산은 선악은 껍데기요, 속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이다. 선뿐이다.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다. 상산은 이 줄기를 타고 외골수로 간다. 주자와 상산의 차이는 둘이 하나(二而一)냐, 하나가 하나(一而一)냐 하는 것이다. 상산은 하나가 하나라고 주장한다. 나는 나다. 나무는 나무다. 단순하게 하나를 말하고 쉽게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주자는 단순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세계는 복잡하기 한이 없었다. 일체가 대립이요, 모순이다. 이 모순과 대립의 통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주자는 믿음(居敬)만 가지고는 안된다, 역시 지식(窮理)이 뒤따라야 한다, 주체적체인(主體的體認)과 주지적궁리(主知的窮理)가 서로 들어맞아야 도가 확 뚫린다(豁然貫通)고 말한다. 주자는 언제나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산은 존덕성으로 족했다. 주자는 마음도 성정(性情)의 통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은 성과 정을 합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성(性)과 정은 모순되고 대립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좋다고 할 수는 없었다. 좋은 것은 성만이 좋다. 그래서 그는 성즉리(性卽理)라고 했다. 그러나 상산은 마음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은 본래 좋은 것으로 마음에는 흐린 물과

*마음은 본래 좋은 것으로 마음에는 흐린 물과 맑은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은 맑은 물뿐이요, 아무리 흐린 물도 놓아두면 맑아진다.*

맑은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은 맑은 물뿐이요, 아무리 흐린 물도 놓아두면 맑아진다는 것이 상산이 주장한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의 사고방식이다. 상산은 사람의 마음을 물로 보았기 때문에 물이 물 되기란 매우 간단하고 쉬웠고, 주자는 사람의 마음을 불로 보았기 때문에 나무가 불이 되기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상산은 자기의 방법을 이간(易簡)이라 하고 주자의 방법을 지리(支離)라고 했다. 주자가 오랜 노력 끝에 가 닿는 곳, 상산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모순 대립을 본 주자는 물건이건 마음이건 어디서나 법칙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자득하여 조화와 통일을 얻으려고 했지만, 상산은 자연과 인간의 법칙성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주자는 근본 이치로서의 태극을 이와 기로 갈라 태극이라고 하였으며 태극의 이는 그 성격이 있다고 하면 없어지고 없다고 하면 있어진다는 변증법적인 사고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산은 그런 변증법적 추리는 끝없이 부정의 부정을 계속할 뿐 어디서나 종합 통일이 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변증법적인 추리 자체가 태극의 진상을 체득 못할 증거며 이 세상에 꼭 차 있는 자는 이(理)요, 이가 곧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은 있는 것뿐이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다는 것은 얼빠진 증거라는 것이다. 결국 주자는 사변의 철학이요, 상산은 직관의 철학이다. 주자는 이성(理性)의 철학이요, 상산은 그대로 생(生)의 철학이다. 주자는 지의 철학이요, 상산은 정의 철학이다. 주자는 개인과 국가의 철학이요, 상산은 가족과 세계의 철학이다.

상산은 대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랐다. 한 집에 백 명 이상이 살았고 상산의 부형들은 효제로 이름 높은 사람이다. 공자는 효재를 인(仁)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인류에는 결국 가족애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자기 마음속에 성(性), 정(情)의 괴리를 날카롭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속에 빈부의 갈등과 상하의 대립과 군민의 모순과 이방민족의 침략을 너무 뼈저리게 보았다. 이 모순과 대립을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그의 사색의 초점이었으며, 이 통일의 근거를 그는 태극의 이(理)라고 하였다. 주자가 이이일(二而一)의 사고방식을 취한 것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그 논리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자는 이론과 실천의 인간이었고, 상산은 실천만의 인간이었다. 이론과 실천의 주자의 체제는 곧 깨어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는 태극 근거의 이를 실제화하고 존재하는 기(氣)를 궁극자로 하여 이법(理法)을 기의 조리로 삼는 자연철학이 생겨나게 되고, 실천을 주로 하는 학파는 상산을 비롯해서 태극 근거의 이와 마땅히 지켜야 할 이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어 상(象)으로 통일하고 심학(心學)을 형성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실천의 인간이 되어 주체적 인간으로 탈바꿈을 한다. 상산의 주자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은 상산의 「구국론」에 있다.

“위기가 임박했는데 위기의 본질을 찾고 있는 논리적 인간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주체적 인간이 되어 적을 물리쳐야 하지 않느냐.”

“적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적을 쳐부숴야 하지 않느냐. 힘이 문제지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상산의 생각이다. 주자는 철학이요, 상산은 종교가다. 믿음이면 족하지, 힘이면 족하지, 살았으면 그만이지, 그밖에 무슨 잔말이

필요하나. 상산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힘을 찾았고 주자는 힘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전제로 빛을 찾았다.

그 후 중국은 심학으로 나라를 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자학으로 나라를 망쳤다. 약을 써가면서 서서히 고치는 것은 아직도 위험이 절박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순간을 다투는 위험한 시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약을 오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종교는 언제나 위기의 산물이다. 기적을 구하고 구세주를 기다림은 위기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자를 극복하고 상산으로 줄달음쳤다. 그러나 어두운 이 나라 백성들이 주자를 쓰는 동안에 병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도 상산을 썼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산의 사상은 후일 왕양명의 사상으로 꽃을 피운다. 상산이나 주자나 힘의 근거가 빛에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태양이 모든 힘의 근원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동양철학에서는 태양과 같은 힘의 근원을 태극(太極)이라고 했다. 태양빛을 태극지리(太極之理)라고 했다. 주자나 상산이나 태극지리를 힘의 근거로 생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태극지리라는 것은 요즈음 말로 하면 진리라는 말이다. 진리는 깨달아야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산은 50세 때 59세였던 주자에게 말하길, “그대의 글이 힘이 없는 것은 그대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이라고 주자의 아픈 곳을 찌른다(尊兄會實見太極). 그리고 주자가 보았다는 진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허깨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허깨비를 무극(無極)이란 말로 표현했다. 주자는 언제나 태극 배후에 무극을 생각하고 무극을 태극의 존재 근거로 삼았다. 무극 없이는 태극이 있을 수 없고 태극 없이는 무극을 알 수가 없다고 하고 태극을 무극의 인식 근거로 삼았

다. 주자는 언제나 무극과 태극을 같이 주장했다. 상산은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것은 주자의 이원론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주자의 무극을 깨치는데 최선을 다했다. 상산이 50세 때 봄에 쓴 편지에는 무극이 노자의 도교사상이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그해 가을에는 무(無)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교의 선과 다를바 없다고 공격하였다. 상산의 존심명리(存心明理)의 이기일원에서 생명철학이 되는 심즉리의 일원론 입장에서 보면 태극지리는 우주의 고유한 실재로서 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 실재 위에서 윤리의 행동률은 그 힘을 얻는다. 허무에서는 힘을 끌어낼 수가 없다. 도교처럼 세상을 도피한다든가 불교처럼 세상을 떠난다면 허무가 필요하여 태극 위에 무극을 또 붙여야겠지만,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과 신은 문제가 안된다. 허무도 무극도 다 인간본위가 아니다. 인간성 위에서 인간해방을 주장하는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도교나 불교의 입장을 그대로 용납하는 주자의 생각은 어딘지 얼빠진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렴계가 미숙할 때의 작품이 되어 그렇지 원숙해졌을 때 쓴 주렴계의 『통서(通書)』에도 무극이란 말이 없다. 주자의 선생 정명도와 정이천의 글에도 무극이란 말은 없다. 무극은 중국의 정통이 아니다.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 맹자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도 무나 무극을 찾아볼 수 없다. 무극을 찾는다는 것은 주체성을 잃고 역사를 무시한 얼빠진 망둥이나 하는 짓이다.

상산의 편지에는 지성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노기까지 띤다. 그러나 주자의 입장에서 상산은 솔직하고 순진해서 좋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학문을 무시하고 신앙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힘은 있어도 자칫하면 미쳐 날뛰기 쉽

인생의 목적은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되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있을 리가 없다. 이원이고 분열이고 모순이고 갈등이고 있을 리가 없다.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나와의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민이 있지. 사람이 사람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모순도 갈등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다. 학문적인 태도에는 물론 회의적인 성격이 강하여 좀처럼 신앙을 얻기 힘들고 언제까지나 각의 세계에 들지도 못하고 의지박약의 창백한 젊은이가 되어 일도 못하는 병신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문없는 인간을 주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주자도 나이 40세에 그의 성즉리의 입장을 굳혔다. 주자는 상산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생각에 회의를 품고 마음을 성과 정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성을 이(理)라고 하여 마음은 감정이 미발(未發)일 때만 거기에 성(性)이 구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이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가지 덕을 말한다. 그러나 마음에 감정이 움직일 때의 성은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발단으로 발동된다. 즉, 마음에는 성이라는 이가 있어서 인간 행동의 정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하여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심판자로 보고, 성의 절대화, 초월화를 강조하여 하나의 계급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산은 성과정, 미발기발식의 이원적인 계급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일체를 한 집안처럼 생각하여 심즉리라는 혼일적 입장을 취했다. 주자는 선악을 엄연하게 분별하여 성을 마음속의 특별한 개념으로 고정시켰다. ‘이성의 우위’, 이것이 주자가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성산은 한 집안 안에서 그런 분별은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이요, 아무리 고와도 내 딸이니 사랑[仁]만 있으



면 도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산은 진리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한다(良知良能)고 생각했다. 이것을 이간(易簡)이라고 한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하늘은 알기 쉽고 땅은 걷기 쉽다고 했다. 땅을 알기는 어렵지만 하늘을 알기는 쉽다. 해와 달과 별을 알면 하늘을 다 아는 것이다. 바다를 가기는 복잡하지만 땅을 걷기는 간단하다. 왼 발 오른발을 번갈아 디디면 된다. 셋을 아는 것이 하늘이요, 둘로 가는 것이 땅이다. 하늘은 만인이 쳐다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이요, 땅은 만인이 다 걸어들 수 있다.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땅이다. 상산은 진리의 본질을 하늘처럼 보편적인 것과 땅처럼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것이 이간(易簡)이요, 중(中)이기도 하다. 중이란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를 칼로 내리찍는 것이다. 보편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을 상산은 자기 속에서 찾았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절대는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상산이 34세 때다. 이때 그는 진사에 급제하고 서울에서 많은 학자들과 만나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학자들의 말은 모두 학문이 어렵고 너무 많다는 것이다. 죽도록 봐도 다 못 볼 학문을 태산같이 앞에 쌓아놓고 있고, 소화도 되지 않은 학문을 허리가 굽도록 등에 걸머지고 있다. 요새 수험생들과 같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사회제도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산은 학자들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리를 밖에서 구하는 탓이다. 생의 목표를 밖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지위와 학식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을 정말로 착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다. 악착같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구하여지면 악착같

이 그것을 쓴다. 결국 세상은 악에서 악으로 더 악해지기 마련이다.

상산은 인생의 목적을 안에서 찾았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되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있을 리가 없다. 이원이고 분열이고 모순이고 갈등이고 있을 리가 없다.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나와외의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민이 있지, 사람이 사람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모순도 갈등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다’ 하고 인정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나라고 선언하면 된다.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知)이지 어려운 것을 아는 것이 지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예(禮)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예가 아니다. 그것은 억지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의(義)며 옳은 것이란 자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재미있는 것이지 재미없는 것을 아무리 가지고 그래도 대성할 리가 없다. 출세니 입신이니 하여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하지 말고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아무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성인도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지, 성인이라고 무슨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전도 모두 그런 것이지 그것도 특별한 것일 리가 없다. 경전도 마음의 주석이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공부해보아도 아무 쓸데가 없다. 경전은 내 소리지, 남의 소리가 아니다. 내가 내 소리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결국 억지로 경전을 외우게 하는 동안 얼이 빠져나가 주체성을 상실했으니 제 말이 제 말인 줄도 모르고 원수의 말처럼 생각하는 것뿐이다. 마음만 있으면 경전처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으랴. 상산은 세상에 제일 중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과 이치는 둘이 아니다. 마음 있는 곳에 이치가 있고 이치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心卽理). 마치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듯이 마음이 있으면 으레 이치는 있게 마련이다(蓋心一心也 理一理也 至當歸一 精義無二 此心此理實不容有二).

마음에 있는 일이 내 일이요, 마음이 없으면 나도 없다. 마음이 끝나다. 그는 마음속에서 주체성(主體性)을 찾고 명리에 빠진 당시 지식인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던졌다. 상산의 열[主體性] 찾기 운동은 평생 계속됐지만 상산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사람들은 그가 13세 때 우주(宇宙)의 글자 풀이를 하다가 “사방상하우(四方上下宇) 왕고내금주(往古來今宙)”라는 고주(古註)를 읽고 심학(心學)의 입장을 굳혔다고들 한다.

“주는 무한이란 말이요, 우는 영원이란 말이니 영원 무한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주란 마음이란 말이요, 우주의 이치란 마음의 이치니, 이치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상산이 무한한 하늘과 영원한 땅을 문제 삼은 것은 네 살 때부터라고 한다. 네 살 때 하늘과 땅에 끝이 있느냐고 물어 아버지를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상산의 논적 주자도 어렸을 때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역시 아버지를 당황케 했다는 것이다. 8세에 벌써 경전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진짜 성현의 말인지 아닌지에 회의를 던졌다는 것이다. 후일 상산이 제자들에게 걱정은 의심이 없는 것이다. 조금 의심하면 나아지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발전한다고 알려주었거니와 이것은 주자도 크게 의심하면 크게 발전한다고 제자들에게 의심을 일으키라고 권장한 점이다.


상산은 어려서부터 조속하고 총명하며 용모가 단정하여 벌써 어린 같은 데가 있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선비였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 약장사를 하여 대가족을 부양하였다. 백여 식구가 한 지붕 밑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이좋게 살았다. 상산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여 가사를 도왔다. 형제의 막내동으로 형제들은 머리가 좋아 모두 학자였다. 특히 손위의 형 복재는 주자와 열렬한 논쟁을 벌인 사람이다. 상산이 나이 많은 주자와 맞서게 된 것도 형님의 뒤를 밀어주다가 자기가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본래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후예로 상산의 8대조는 당 고종 때 재상을 지낸 명문이었으나, 오대 말 전란을 피하여 강서성 금계(金鷄)로 이사한 후에는 계속 재산이 줄어들어 상산의 아버지 때는 평생을 처사로 늙을 정도로 궁지에 빠져 있었다. 온 집안이 상산에게 많은 기대를 걸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벼슬을 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상산은 그 길이 싫었다. 상산이 생각하는 성현되는 길은 관리가 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그는 공리를 위주로 하는 관료생활이 싫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로 할 수 없이 24세에 향시(鄉試)를 치기 시작하여 34세에 과거의 마지막 시험에 겨우 합격했다.

상산이 임금을 배알할 기회를 얻자 강개직언으로 흥정을 간하였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사서 시험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간신히 붙게 되었다. 진사가 되자 학자와의 토론은 계속 되었으며 당시의 신진 양자호는 상산에게 본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상산은 그대가 오늘 내린 부채(扇)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본심의 판결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자호는 자기 마음의 일점 청명을 반성하여 깨끗한 마음이 천하에 통하는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양자호를 통하여 여러 제자가 줄을 이었다.

36세에는 정안현 주부라는 벼슬을 하고, 37세에는 주자와 아호사에서 만나게 된다. 그 후 43세에 상산은 주자에게 초대받아 백록동서원에서 강의를 한다. 의리(義利)와 공사(公私)의 구별을 통하여 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함에 주자를 비롯하여 듣는 이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44세에 서울에 올라가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때 주자가 태주지사 당중우의 부패를 탄핵함을 대찬지지하여 주자를 응원하였다. 대학에서의 그의 강의는 『춘추(春秋)』였다. 그는 시대를 비판하고 열빠진 선비들을 비판하여 새로운 주체의식을 불러일으켰다. 48세에는 임금님의 정치담당 보좌관이 되어 정치의 득실을 분석해주었다. 상산의 생각은 언제나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있었고 인재를 구하여 국력에 충실하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정치로 구폐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48세에 그는 태주 송도관을 주관하는 봉사의 한직을 맡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상산의 집에는 학자들이 모여들어 시골어른과 정부의 관리들을 비롯하여 이삼백 명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간결하고 알기 쉬운 상산의 심학은 모든 계층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53세에 형문군지사(호북성湖北省)가 되어 세제를 개혁하고 형식적 의를 없애고 관리나 백성들에게 심학을 가르쳤다. 인간행동의 원리를 애친경형(愛親敬兄)에 두고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신불에 빌지 않아도 복을 받고 아무리 학문이 없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었다. 상산의 정치실적은 날마다 올라 소송은 줄고 도적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54세에 상산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폐결핵이 재발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는 정무를 정리하고 가사를 단절한 후 눈 오는 겨울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정제하고 정좌하여 약물을 거절하고 12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상산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주자

는 문인들과 같이 대성통곡하였다고 한다. 『상산문집』 28권, 『외집』 6권이 남아 있다. (끝) 

- 이 글은 '길을 찾은 사람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길을 찾은 사람들

김흥호 저 | 도서출판 솔 | 9,800원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처럼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책. 원효대사를 비롯해 율곡 이이, 만해 한용운, 도산 안창호, 공자와 맹자, 석가, 간디 등을 담았다.